



세월호의 목포신항 입항이 임박한 29일 오전 목포시 거리에 세월호 추모 리본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봄 축제’ 대신 ‘세월호 추모’

광주시, 프린지 페스티벌 내달 22일로 연기

목포시, 유달산 축제 취소 등 전국 추모 물결

세월호 침몰과 인양이 현장인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들이 ‘봄축제’에 추모 의미를 담거나 행사 자체를 취소해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4월 1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열기로 했던 프린지 페스티벌을 같은 달 22일로 연기한다고 29일 밝혔다. 프린지 페스티벌은 격주로 토요일에 열리는 광주의 대표 ‘문화난장’으로 애초 4월 1일 오후 대장정의 시작을 알리며 대규모로 개막 행사를 가질 예정이었다.

또 4월 15일 금남로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3주기 전야제에서 일부 공연단이 추모 프로그램에 동참해 공연하도록 예정이다.

이와함께 세월호가 목포신항으로 옮겨 후속 조치를 취하게됨에 따라 목포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꽃피는 유달산 축제(4월 8~9일)’를 아예 취소했다. 나주시 역시 한수제 벚꽃 한마당(4월 7일)을 열지 않기로 했다. 세월호 인양작업이 한창인 만큼 시급박적인 축제를 열기보다 국가적 추모 분위기에 동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목포시는 축제를 취소하고 대신 세월호의 목포 신항 내 철재 부두 거치 작업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최근 16개 부서로 구성된 목포시 세월호지원본부도 발족했다.

영암군은 다음 달 6~9일 열리는 ‘영암 왕인문화축제’와 ‘대한민국 한옥 건축 박

람회’를 추모 분위기 속에서 치르기로 했다. 영암군은 국민적 추모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세부 행사를 축소하거나 취소하고 추모 프로그램을 편성하기로 했다.

강진군도 4월 1일 사초 개불 축제 일정에 세월호 추모 행사를 포함했다. 가수 공연 등을 취소했으며 강진원 군수 등 개막식에 참석하는 기관·단체장은 모두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기로 했다. 2일 사초 해변공원 방파제에서 열리는 폐막식에서는 노란색 풍선 416개를 띄우며 미수습자 모두 귀환하기를 기원한다.

한편 세월호 희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들이 다녔던 단원고가 소재한 경기도 안산 지역의 추모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60여 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4·16 안산시민연대는 4·16 가족협의회, 세 번째 4·16 봄을 만드는 사람들과 4월 1일 오후 7

시 고잔동 안산문화광장에서 ‘봄을 외치다’란 주제로 기억문화제를 연다. 4월 4~19일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에서는 참사 3주기 추모공연으로 ‘4월 연극제’가 열린다.

참사 3주기 날인 16일에는 안산시와 4·16 가족협의회, 시민 사회단체가 다양한 추모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오후 3시 화랑유원지 내 세월호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에서 참사 3주기 추모제인 ‘기억식’이 열린다. 기억식은 추모 사이렌에 맞춰 3년 전 그날을 기억하며 묵념하고 추도사, 추모 영상, 공연, 분향 및 헌화 등으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오전 11시 화랑유원지 대공연장에서 김제동과 함께하는 전국청소년 만민공동회가 열리는 등 화랑유원지 공연장과 분향소 주변에서는 은총일 시화전과 추모작품 전시, 퍼포먼스, 예술제, 종교행사 등 다양한 추모 행사가 이어진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세월호 이번 조사가 마지막 되게 국민이 납득할 결과 내놓을 것”

김창준 세월호 선제조사위원장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 결과를 내놓겠습니다. 세월호 선제조사 위원회의 조사가 마지막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창준(62) 세월호 선제조사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는 29일 “법 절차에 따라 서, 법에서 규정된, 조사위원회 부여된 모든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날 목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전에 저를 포함한 8명의 위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던 첫 회의는 내부적인 행정적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회의에서 위원장에 제가, 부위원장으로는 김영모 교수가 선임됐다”고 발표했다.

선제조사위와 해양수산부 업무 성격에 관련해서 “세월호 목포신항 거치 후 해수부가 작업에서 손 떼는 것이 아니다. 미수습자 수습, 선제조사, 유류품 수습 전반의 집행자 역할을 해수부가, 이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은 선제조사위의 몫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리성이 떨어지는 선제 훼손 행위 또한 법에서 정한 선제조사 방해행위로 보고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제조사위 조사가 진정으로 마지막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재삼 강조하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모든 국민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결과를 만들어



29일 오전 목포시청에서 열린 세월호 선제조사위 첫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창준 변호사가 향후 조사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래 목적은 선체의 조사지만 우선적으로 처리할 사항은 미수습자 수습”이라며 “이 부분을 우선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게 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 위원장은 부산 출신으로 법무법인 세경 대표변호사다. 사법연수원 11기 출신으로 한국해법학회 부회장, 한국보험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한국보험법학회 회장, 국민권익위원회 보상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박근혜 ‘피의자석’에서 직접 소명할 듯

구속 전 심문 어떻게

의견 진술 후 판사 확인 질문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 재판장에게 직접 자신의 혐의를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당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한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 가운데에 놓인 ‘피의자석’에 앉아 심문을 받는다. 판사와 마주보는 자리다. 박 전 대통령을 기준으로 검찰은 왼쪽, 변호인단은 오른쪽 각 지정석에 자리하게 된다.

심문에선 우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과 왜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를 설명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만 13가지인데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의견 진술이 끝나면 맞은 편 변호인 측이 반박 의견을 제시한다.

양측의 의견 진술이 끝나면 심문을 맡은 강부영 판사가 직접 박 전 대통령에게 확인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대통령님’이란 호칭을 썼는데 법정에서는 ‘피의자’로 불릴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외부에 공개되는 부담을 감수하고 심문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만큼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검, 우병우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수사

2014년 당시 광주지검 부장검사 진술서 받아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수사를 담당하던 검찰 간부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의혹 확인에 나섰다.

29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최근 윤대진(53· 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부터 세월호 수사와 관

련해 진술서를 받았다.

윤 차장검사는 2014년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했다. 우 전 수석은 해경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윤 차장검사 등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 5일 검찰 수사팀이 해경 압수수색을 시도하

던 날 윤 차장검사와 통화했다고 작년 12월 22일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언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압수수색 문제를 두고 국가 기관인 검찰과 해경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판단해 조정 역할을 하기 위해 상황을 파악한 것이고 결국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수본은 윤 차장검사의 진술서를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받은 우 전 수석의 진술 내용 등과 대조해 모순점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관련 내용을 검토해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검사를 참고인 등으로 조사할지도 주목

된다.

특검은 앞서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을 수사했으나 이와 관련해 다른 검사를 소환 조사하거나 진술을 받지는 않았다. 우 전 수석은 승객 구조에 실패한 김경일 당시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담당 검사에 지시했다는 혐의로 박근혜전권퇴진비서관민행동(퇴진행동)으로부터 고발되기도 했고 검찰은 관련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일 전 123정장은 결국에는 기소돼 업무상과실치사 죄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상태다.

/연합뉴스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하남동 5층 상가건물 대490㎡ 건물2,000㎡ 매 40억원
- 하남동 3층 상가건물 대990㎡ 건물1,890㎡ 매 50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28억원(보2억원,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류점 입점 매13억원 (보1억5천, 월5백만 포함)
- 산정동 4층 상가건물 1,000㎡ 매24억원(보1억6천, 월1,100만 포함)
- 수원동 5층 상가건물 750㎡ 매 23억원(1층 약국입점)
- 신가동 4층 상가건물(일반상업지역) 대308㎡ 건1861㎡ 매14억
- 송정동 2층 상가건물 대385㎡ 건물500㎡ 매 13억
- 치평동 3층 상가점포 410㎡ 매5억(보5000만, 월220만 포함)

상가주택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00㎡ 건500㎡ 매 13억5천 (보8천/월524만원 포함)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246㎡ 건397㎡ 매10억5천 (보3천2백/월356만원 포함)
- 신가동 4층 상가주택 상업지역 대265㎡ 건609㎡ 매10억5천 (보4천 월500만 포함)
- 상기 외 다수 물건 보유, 상담환영

토 지

- 화정동 대지 967㎡ 매 35억원
- 산정동 생산녹지, 창고용지 3,810㎡ 20억
-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대지 1316㎡ 매1억4천(지대높음, 남향)
- 담양군 남면 학선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창고용지 4,500㎡ 매 2억원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3,000㎡ 매 1억8천만원

상가임대

- 장덕동 4층 빈 상가 830㎡ 4천/월450만(매매가)
- 장덕동 키즈카페(자동차체험형) 300㎡ 5천/월365만
- 수원동 대형 패밀리카페 1200㎡ 3억/월1,500만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조사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 - 6833 - 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농성동 건물매매

- 농성동 450번지 4층 건물
- 대지165㎡ 건물488㎡
- 보 1700만 / 월 165만(임대중)
- 광고효과 최상
- 매매 4억 7000만원

문의 010-9203-6161